힘펑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령IC 구간 광역 동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 허정무호 20일 월드컵 亞예선 사우디전 25명 확정

이 운 재

염 기 훈

박 주 영

그들이 돌아왔다

임유환·하대성은 첫 발탁
'부상' 곽태휘·신영록 제외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원정경기(20일)에 나설 축구 국가대표 25명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도르트문트)를 포함한 해외파 5명과 정성훈(부산), 김형범(전북) 등 사우디아라비아 원정 경기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아시안컵 음주 파문으로 받았던 대표팀 1년 자격정지 징계가 해제된 골키퍼 이운재(수원)와 프랑스 무대에서 시즌 2호 골을 터뜨린 박주영(AS모나코)이 허정무호에 합류했다.

해외파는 박주영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 박지성, 독일 분데스리가에 안착한 이영표, 김동진(제니트), 오범석(사마라) 등 유럽 무대에서 뛰는 5명이 허정무 감독의 변함 없는 신뢰를 확인했다.

반면 지난달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최종예선 2차전 4-1 승리를 이끌었던 엔트리 22명 중 주말 K-리그 경기 때 오른쪽 무릎을 다친 '골 넣는 수비수' 곽태휘(전남)와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공격수 신영록(수원)은 빠졌다.

대신 중앙수비수 김치곤(서울)과 임유환(전북), 미드필더 하대성(대구)이 허정무 감독으로부터 거센 모랫바람을 뚫을 특명을 받았다. 임유환과 하대성은 허정무 감독 취임 후 첫 발탁이다.

또 UAE전까지 A매치 두 경기 연속 두 골을 뽑는 빼어난 골 감각을 과시한 이근호(대구)와 장신(190㎝) 공격수 정성훈과 '프리킥의 달인' 김형범도 재신임을 받았고 부상에서 회복한 '왼발 스페셜리스트' 염기훈(울산)과 풀백 요원 최효진(포항)도 허정무호에 재합류했다.

더불어 대표팀 막내 기성용(서울)이 노련한 김정우(성남)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를 지킨다. 또 측면 미드필더인 '젊은 피' 이청용(서울)과 공격수 서동현(수원)도 사우디 원정에 나선다.

한편 대표팀은 10일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되며 11일 출국해 15일 새벽 카타르와 평가전을 치른 뒤 20일 오전 사우디와 최종예선 3차전을 벌인다.

◇명단 ▲GK = 이운재(수원) 정성룡(성남) 김영광(울산) ▲DF = 강민수 임유환(이상 전북) 조용형(제주) 김동진(제니트) 김치우 김치곤(이상 서울) 이영표(도르트문트) 오범석(사마라) 최효진(포항) ▲MF = 이청용 기성용(이상 서울) 김정우(성남) 조원희(수원) 박지성(맨유) 김형범(전북) 송정현(전남) 하대성(대구) ▲FW = 서동현(수원) 이근호(대구) 정성훈(부산) 박주영(AS모나코) 염기훈(울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이운재·염기훈·박주영 복귀 남다른 감회

마침내 그들이 돌아왔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3일 오전 카타르 평가전(15일)과 사우디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에 나설 25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운재, 박주영, 염기훈을 발탁했다.

이운재와 박주영, 염기훈의 공통점은 올해 '아픔' 속에 시즌을 보내다 힘겹게 대표팀에 합류한 것이다. 이운재는 지난해 대표팀의 아시안컵 음주파문에 휩쓸리면서 1년 동안 대표팀 유니폼을 입지 못하다가 최근 징계가 풀리면서 15개월여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허정무호에서 가장 많은 득점(4골)을 올린 박주영은 '자신감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면서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을 끝으로 탈락했지만 프랑스 무대 진출 이후 골 소식을 전하고 4개월여 만에 대표팀에 돌아왔다.

반면 염기훈은 '왼발 스페셜리스트'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허정무호 초기에 연속골 행진을 펼쳤지만 지난 4월 발등뼈 피로골절로 대표팀과 인연을 접어야만 했고, 힘든 재활을 견딘 끝내 6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따냈다.

이들 가운데 대표팀 복귀의 감회가 남다른 것은 이운재다. 이운재는 공교롭게도 대표팀 발표를 하던 날 두 딸에 이어 첫 아들을 얻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운재는 대표팀 발탁 소식을 듣고 "솔직히 반반의 심정이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후배들을 위한 자리이고 워낙 후배들이 잘 해주고 있어서 내가 뽑힐지 생각을 못했다"고 전했다.

이운재는 2007년 아시안컵에서 동료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년 동안 대표선수 자격정지와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운재는 낙담하지 않고 주어진 징계를 성실히 따르면서 올해 K-리그에서 36경기에 출전해 26실점을 기록, 경기당 평균 0.72점만 내주는 맹활약으로 팀의 정규리그 1위 탈환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기록만으로도 함께 골키퍼에 뽑힌 정성룡(평균 0.84점)과 김영광(평균 1점)을 앞서는 '노장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

이-음주 징계 15개월만에
염-발등뼈 골절 재활 성공
박-'모나코'서 자신감 회복

박주영은 대표팀 발표를 하는 날 자신의 프랑스 리그 2호골을 터트리면서 허정무호 복귀를 자축했다. 올해 K-리그에서 자신감 결여 때문에 골 부진에 빠졌던 박주영은 프랑스 AS모나코로 이적하자마자 골 맛을 보면서 부활을 알렸고, 허정무 감독이 직접 모나코를 방문해 컨디션을 점검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부상에서 벗어난 염기훈의 태극마크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측면 공격수 자원 확보는 물론 세트피스 상황에서 왼발을 잘 쓰는 염기훈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는 게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대표팀 복귀 자축
佛서 시즌 2호골

박주영 50일만에 골 맛
AS 모나코 2연승 견인

박주영(23·AS모나코)이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서 2호골을 터트렸다.

박주영은 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르아브르의 줄데샤쇼 경기장에서 열린 2008~2009 프랑스 정규리그(리그1) 1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최전방 투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며 2-1로 앞선 후반 4분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모나코 입단 후 첫 경기였던 9월14일 로리앙과 정규리그 5라운드(2-0 승)에서 1골1도움을 기록한 뒤 컵대회를 포함해 8경기, 50일 만에 터트린 프랑스 리그 통산 2호골이다. 모나코는 3-2로 승리해 박주영의 득점은 팀의 2연승을 이끈 결승골이 됐다.

데뷔전부터 정규리그 8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박주영이 그동안의 골 침묵에 대한 부담을 깨끗이 씻어낸 경기였다. 4-4-2 포메이션에서 알레산드레 리카타와 투톱으로 나선 박주영의 몸놀림은 위협적이었다. 전반 4분 박주영의 패스를 받은 알레얀드로 알론소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오른발슛이 옆 그물을 맞았다. 박주영은 전반 12분 골 지역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를 등지고 오른발 터닝슛을 날렸지만 골키퍼 정면에 안겼다.

모나코는 전반 20분 요한 몰로의 코너킥에 이은 레안드로 쿠프레의 헤딩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 박주영에게 두 차례 결정적 득점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아쉽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전반 24분과 26분 알론소의 코너킥에 이은 박주영의 두 차례 헤딩슛을 골키퍼가 모두 쳐냈다. 박주영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 모나코는 전반 40분 페헤이라 아드리아누의 도움으로 리카타가 추가골을 넣어 전반을 2-0으로 앞선 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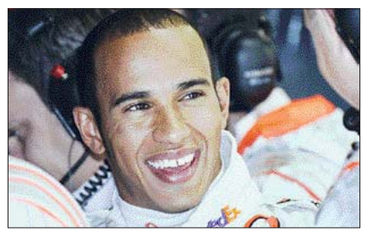
모나코는 후반 시작 3분 만에 르아브르의 로이크 네스토르에게 만회골을 내줘 쫓겼다. 하지만 해결사 박주영의 득점포가 곧바로 터졌다. 실점 1분 뒤 알론소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어 크로스를 올렸고, 박주영이 문전으로 쇄도하며 오른발로 차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자칫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값진 골이었다.

모나코는 후반 15분 르아브르의 알라상에게 한 골을 더 내줬지만 끝까지 리드를 잘 지켜 2연승을 거뒀다. 박주영은 후반 17분에도 리카타의 크로스를 골문 앞에서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상대 골키퍼가 다시 몸을 던져 잡아내 추가 득점은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해밀턴 F1 올 시즌 챔프

종합 점수 98점…1점차 우승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메르세데스·사진)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1) 그랑프리 2008 시즌 챔피언에 올랐다.

해밀턴은 3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서 5위로 들어왔지만 종합 순위에서 98점이 돼 97점의 펠리페 마사(브라질·페라리)를 간신히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맛봤다.

극적인 우승이었다. 지난 시즌에도 최종 라운드 전까지 단독 1위를 달리다 브라질 대회에서 7위에 그치는 바람에 키미 라이코넨(핀란드·페라리)에 역전을 허용해 준우승에 그쳤던 해밀턴은 이번 대회에서도 6위 이하로 처졌더라면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끊은 마사에게 우승컵을 내줄 뻔했다.

해밀턴은 6위로 들어온 티모 글로크(독일·도요타)에 마지막 바퀴까지 뒤졌으나 레이스 막판 빗속에서 미쳐 우천용 타이어로 바꿔 끼지 못했던 글로크가 마지막 스퍼트를 하지 못한 덕에 결국 5.4초 앞서 5위로 들어오며 가까스로 시즌 우승컵을 지켜냈다.

1985년 1월7일에 태어난 해밀턴은 23세 9개월 26일에 F1 종합우승을 차지해 종전 최연소 챔피언 기록인 2005년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르노)의 24세 1개월 27일을 앞당겼다.

해밀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많은 팬의 성원이 있어 긴 시즌을 마칠 수 있었다"라며 "팀원들이 모두 자신을 희생해가며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냈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1점 차로 준우승에 그친 마사는 "불행하게도 1점이 모자랐지만 그것이 레이싱"이라며 "최선을 다해 훌륭한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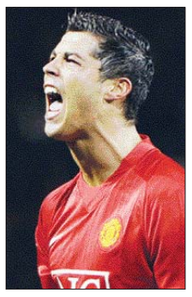
F1 드라이버 사상 첫 흑인으로 지난 시즌 데뷔한 해밀턴은 첫해 2위에 이어 2년차 때 우승하는 등 탁월한 경기력에 잘생긴 외모까지 겸비해 미하엘 슈마허(독일) 은퇴 이후 F1의 간판스타로 자리 잡게 됐다.

팀 순위에서는 페라리가 172점으로 151점에 그친 맥라렌-메르세데스를 제치고 2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연합뉴스

뚫고 가기엔 역부족 3일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신한은행 경기에서 우리은행 김계령(왼쪽)과 신한은행 최윤아가 치열한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을 66-56으로 제압했다. /연합뉴스

"호날두 몸값 1주에 3억여원"

맨유 장기계약 조건 초특급대우



'특급 윙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3·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사진)가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초특급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3일(한국시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말을 인용하면서 맨유가 호날두를 2014년까지 잡아 두려고 주급을 15만 파운드(한화 3억1천500만원)로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몸값은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최고 대우다. 지난해 4월 호날두와 주급 12만 파운드(2억 5천200만원)에 2012년까지 재계약했던 맨유가 2년 계약 연장과 몸값 인상으로 지난 시즌 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휩싸였던 호날두의 자존심을 살려준 것이다. /연합뉴스